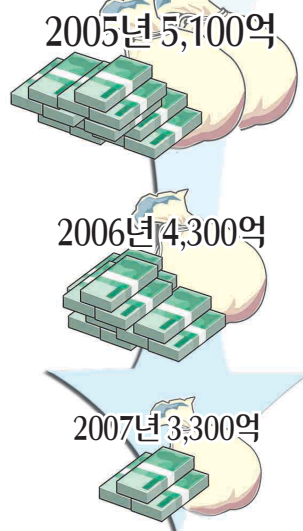




“소상공인 지원자금 매년 줄어 광주·전남 소기업 창업 어렵다”

지역중소 활성화대책 중기청장에 요구



광주시의 올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3%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추세여서 창업시장과 영세 소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전남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청 예산, 중장기 예산 등 중소기업 유관 기관을 전남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0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을 위한 현장대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2005년 5천100억원, 2006년 4천300억원, 2007년 3천30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면서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또 ▲내년부터 중단 예정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국비 출연금 지속적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시책을 중기청 현안사업 반영 등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시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고흥우주항공센터 개소에 대비하고 지역 청정수산물에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수산물 전문특화시장 소요사업비 105억원 가운데 45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시장은 “전남도의 경우 차입금(국비·지방비)과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부터 중기청이 신규대여를 중단하는 바람에 기업체 융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들의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수 이업종교류 광주·전남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계획을 미리 확보, 신청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공모일지 및 신청기간을 사전 예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석주 광주·전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은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벤처기업의 재확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대응 중소기업에 4조 6,000억 지원”

이현재 중기청장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전략과 관련, 자동차·화학·철강 등 광주·전남지역 특화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4조6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세부항목별로 ▲특화산업분야 연구개발(R&D)에 227억원 ▲공공구매에 2조2천억원 ▲정책융자에 1조4천억원 ▲보증공급에 2조2천억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

이다”며 “특히 사업전환을 위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류설비 매각 및 압선, 세제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상습 불공정기업은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 급증... 지방 공항을 잡아라 아시아나·대한항공 증편 경쟁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노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등 수도권 공항과 더불어 지방발 국제선 공략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광주·김해·대구·부산·제주·울진·삼척 등 지방공항 등을 이용해 인기 지역인 중국·일본·동남아 노선을 신설하거나 늘리고 있다.

이같은 국내 항공사들의 움직임은 소득수준 향상과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지방에서 직접 단거리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발주자인 대한항공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중국·태국 등 5개국, 13개 도시로 총 2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후쿠오카를 시작으로 6월 부산-삿포로, 12월 부산-베이징에 신규 취항하면서 제주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시장인 중국·일본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서 여객기 1~2시간 거리에 불과해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행객의 지방 국제공항 이용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게 대한항공측의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광주-상하이, 광주-상하이에 주 2회를 띄우고 부산의 경우 베이징·홍콩·청dao·상하이·시안까지 노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중국·필리핀 등 4개국에 지방발 국제선이 취항중이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양·항저우·오사카·후쿠오카 등 총 12개 노선에 여객기를 투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상하이 노선에 주 5회 취항하면서 포문을 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7일 부산-호찌민 노선까지 신규 취항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산-베이징에 최근 주 5회를 증편해 주 12회 운항하고 부산-마닐라 또한 주 3회를 늘려 주 7회 띄우고 있다.



아시아나 기내 와인 품평회

국제 소믈리에들이 10일 인천공항 LSG케이터링센터에서 아시아나 기내 서비스 와인을 선정하기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아시아나 전 클래스의 와인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기내식에 어울리는 와인 선정을 위해 실시됐다. /연영뉴스

“상하이 홍차오-김포 전세기 운항”

박삼구 회장, 中 총리에 제안

박삼구 ‘한중 교류의 해’ 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한중우호협회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나 한중 서를 제안했다.

박삼구 회장은 상하이 홍차오공항과 서울 김포공항간 정기선 전세기를 운항해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의를 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한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 기업들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중 서를 통해 양국의 비즈니스 상용 수요를 만족시키고 일본 히나나까지 있는 한중일 항공복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과·배·감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7%

보험료를 인하와 보상 기준 완화 등에 힘입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3월 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에서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 결과 가입률이 26.5%로 작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가입률은 보험대상인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의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이 보험에 가입된 면적의 비중을 말한다.

美 중고차도 무관세 수입

FTA 발효 즉시 적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미국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고 자동차들이 무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중고차 역시 신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수입될 때 관세를 물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키로 한 양국의 합의는 중고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고 자동차는 현재 사실상 신차를 포함해 수입하는 비공식 수입업체(그레이 임포터)의 수입분과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의 도입 등이 뒤섞여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가 4만15천여대에 비해 같은 기간 수입차 협회가 밝힌 등록대수는 약 3만7천대로, 8천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부분이 그레이 임포터의 수입분이나 이삿짐 등 개인 도입분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식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은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이 규모가 1만대를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그레이 임포터’의 수입분은 형식상 중고차이나 수입과정에서 명의가 몇 번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신차인 경우가 많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종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과제 모집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과제를 모집한다.

10일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지역형 디자인 개선과제를 선정, 전체 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한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목포시 갯바위권 해양관광

지 조명사업 ▲담양군 지역특화 브랜드 구축사업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브랜드 개발사업 ▲영광군 법성포 굴비마을 가로디자인 개선사업 등이 선정돼 예산지원을 받았다.

디자인 개선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esigndb.com/kidp/)의 신청양식을 작성한 뒤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새로 발명한 발목펌프 운동봉

하루 30분 운동으로 10,000보 걷는 효과

운동효과

발목 펌프 운동이란, 혈액 순환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은 발목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해진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새로 개발한 운동봉위에 다리를 들었다 떨어뜨리는 운동으로써 발목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온몸의 혈액순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치료 되면서 혈액순환 개선과 특히 하체 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발명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7cm 길이 31cm 원통목재와 직경 6.4cm PPC원통 길이 31cm의 각각 양쪽 가장자리에 직경 5cm 스프링 2개를 장착하여 소음진동을 완전 해소 시켰으므로 APT에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스프링의 완충작용으로 인하여 발목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므로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음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의 특징이다. 종전의 각종 통나무, 대롱, PVC등 원통형 운동봉은 소음진동 때문에 APT에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하였으며, 재질이 딱딱하여 발목이 아파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였다.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아래 수건을 깔것)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20~30cm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처음은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하여도 발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문사항에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목재 ₩20,000원 PPC ₩15,000원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125-121-002455, 농협601154-52-335334 예금주 : 서영섭

상담전화 TEL.062)672-2002, H.P. 011-609-0450

탈모!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www.sensmo.co.kr

Before

After

100% human hair 프리미엄 맞춤가발

1. 자연스럽고 편안한가발 센스모의 자랑입니다.
2. 센스모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관리합니다.
3. 센스모는 과도한 광고비 거품을 줄였습니다.

김 현아(지점장)

가발경력 : 10년 전 하이모 지점장

Start Different Life

Sens-Mo

Tel.062)676-3545 / 062)432-3545

위치: 동아병원과 원광대병원사이 낙농농협 맞은편

타사고객 보상판매 및 관리 | 천안점:041)579-6868 울산점:052)271-7007 순천점:061)745-8522